

적격자 심의위원회 회의록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개최일시 : 2020. 5. 6.(수) 10:00 ~ 12:00
- 개최장소 : 서소문별관 1동 5층 회의실
- 주요 내용

김남수 팀장 : 오늘 심의에 앞서 평가위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시의회 상임위가 있어 시의원 두 분은 좀 늦으시겠습니다. 오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시민감사옴브즈만 윤상원 변호사님 입회하셨습니다. 제안 발표는 2개 업체구요,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입니다.

위원장 : 금일 평가위원 총 7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 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보안각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가 업체 입장해 주십시오.

가업체 발표자 : 제안업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 법인 승인을 받아, 올해 15년째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편리함과 동시에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건축 등 하드웨어적 뿐만 아니라 법적근거 마련(조례 제도 등) 같은 소프트웨어에까지 소프트웨어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11개 광역단체 지부를 운영중이며 부설기관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연구소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국립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 학과 교수님이 저희 법인 연구소장님으로 계십니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을 15년째 진행중이며,외바치라는 자회사를 운영중이고 관광 체육 등까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입장입니다. 현재 “이 거리를 바꾸자”라는 캠페인을 운영중이고, 서울시 사업도 많이 참여해 왔습니다. 2017년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개발을 했는데, 주로 공공부문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민간부문에 확대하자는 것이 저희 회사 입장입니다. 실제로 센터 위탁을 맡게 된다면 책임 부분은 전문가분들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육성방안은 현황 및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1차년도에는 실태조사 위주로 추진하고, 인증 관련해서는 인증지표, 인증마크 등 민간으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 홍보 관련해서는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진행할 것이며 네트워크는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등과 협력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2차년도는 전문적 연구에 치중할 것이고 법적근거 마련 등을 하고 중장기 계획 마련도 도출하겠습니다. (발표 종료)

(질의응답)

김봉석 교수 : 제가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제안서에 구체적 계획이 없음. 디자인센터 개소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위치안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음. 인증 등 구체적 계획이 없어 판단할 수가 없음.

가업체 발표자 : PT에는 없지만 제안서에 인증지표 마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겨져 있음. 센터 운영 업체로 선정된다면 공간은 서울시 담

당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임.

김동빈 교수 : 제안서가 제안요청서를 옮겨놓은거 밖에 없어보임. 특별히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가업체 발표자 : 인증지표라든가 부분에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 관광부분에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김소영 교수 : 협약 체결기간이 2023년까지인데 자료는 2021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 자료를 작성했다는 생각이 듦.

가업체 발표자 : 제안요청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했고, 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게 나을 것 같음.

위원장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해 발표해야 맞는데 제안업체 소개 위주이고, HOW To 가 없음.

이인숙 교수 : 평가 기준에 보면 청렴도가 있는데 제안서 내용에는 청렴도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

가업체 발표자 : 정량적 평가 서류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받고 있음. (질의응답 끝)

김소영 의원 : 두 업체가 들어왔는데, 임원이 겹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지?

문병훈 의원 : 가 업체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조차 모르는 것 같음.

위원장 : 토론할 시간이 따로 있으니깐, 나업체 발표 끝나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음.

나업체 발표자 : 센터 개소, 정책적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홍보, 네트워크로 과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추진 목표는 서울시민 모두가 인간중심으로 생활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저희는 그 플랫폼을 만

들겠습니다. 또한, 생태계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센터는 소통과 축적의 플랫폼, 시민이 참여해서 직접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이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전담조직과 연계, 협업해서 정책이 잘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위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열린구조로 유디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개소식은 간단히 설명에 넘어가며, 내부 박사급 연구원과 가이드라인 보완, 실태조사 정리, 주민 참여방안, 시범사업 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BF 관련 일을 해왔던 담당 연구원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운영 방안은 시공부분 컨설팅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관련해서는 작년 시범사업에서 서울시에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린이 등 대상으로 교육 하겠으며,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관련한 부분도 보완해서 진행하겠음. 아카 이빙은 철저히 자료화해서 진행하겠음. (발표 종료)

김봉석 교수 : 예산 498,000천원인데 너무 적은거 아닌지? 유니버설 디자인 업체 역량 및 현황은? 사업이 센터 운영, 연구용역, 교육 등이 혼합되어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듣고 싶음

나업체 발표자 : 예산에서 운영비가 빠져 있는 부분임. 저희 업체는 세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데 메인이 되는 업체는 작년 시범운영을 담당했던 업체임. 두 번째 업체는 통합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세 번째 업체는 색채 관련 전문 업체임. 서울시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들에게 여쭙봤더니 교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었음

김동빈 교수 : 센터 위치로 ddp를 제안하셨는데 찾아가기 힘든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임. 아카이빙 중요성을 강조한 데에 비해 제안서에는 소홀히 담겨 있음.

나업체 발표자 : ddp에 리빙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안했던 것이며 돈의문 박물관은 서울시가 건축사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어서 제안했음. 서울시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함.

문병훈 의원 : 제가 가업체에도 질문을 못했고, 10분이라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위원장께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위원장 : 질문 하시죠.

문병훈 의원 : 15페이지 보시면 ddp 나눔관 자료가 있는데, 공개된 자료예요? 어디서 구하셨죠?

나업체 발표자 : 이부분은 작년 연구용역이 나와서 현재 실행중이고 개소를 곧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의원 : 이게 용역 지시서에 있는게 맞아요? 확실해요?

나업체 발표자 : 용역 지시서에 있지 않구요, 자료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봉석 의원 : 몇점 이상이어야 되나요?

담당자 : 최저점이 42점입니다.

위원장 : 지금 갔죠? 이거 포함해야 합니까? 이런법이 있습니까? 양해도 없이 퇴장하는게.

김남수 팀장 : 회피하신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1년에 7억이 넘는 예산인데, 참여 업체가 그렇게 없었나요?

김봉석 교수 : 제가 보기엔 이 사업의 과업이 연구용역, 운영 등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고 광범위함

(종합채점)

위원장 : 가업체가 정량적평가 27.20, 정성적평가 43.83, 합계 71.03,
나업체가 정량적평가 26.76, 정성적평가 51.13, 합계 77.89로 나업체
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